

모든 날 모든 순간, 샴페인 ‘폴 로저’... “한국은 라이징 스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0



샴페인 하우스 ‘폴 로저’를 이끌고 있는 위베르 드 빌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시그니처 샴페인인 ‘폴 로저 샴파뉴 브뤼 리저브’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샴페인은 일종의 ‘치트키’다. 어떤 상황 이든, 어떤 음식과도 어울려서다.

그렇다고 아무 샴페인이나 치트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 안을 채우는 버블은 거칠지 않게 섬세해야 하며, 어디 하나 도드라지지 않은 균형감이 관건이다.

샴페인 하우스 ‘폴 로저’를 이끌고 있는 위베르 드 빌리(사진)는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 포도 품종과 떼루아가 가진 개성 자체를 최대한 순수하게 표현한다”며 “무겁지 않게 잘 균형잡혀 누구든, 언제든 마시기 좋은(approachable) 샴페인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 로저는 1849년에 설립됐다. 샴파뉴에 대한 거대 기업들의 인수 시도에도 폴

로저는 180년 가까이 가족 경영을 지켜오고 있다. 위베르가 5대손이며 6세대도 와이너리 경영에 합류한 상태다.

폴 로저는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왔지만 유명세를 본격 떨치게 된 것은 왕실의 샴페인, ‘윈스턴 처칠이 사랑한 샴페인’으로 알려지면서다.

폴 로저는 1955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직후 영국 왕실 인증을 수여받았으며, 찰스 3세 국왕 이후 2024년 5월에 왕실 인증을 공식 재승인 받았다. 폴 로저의 모든 샴페인에는 왕실인증서 공식 마크가 붙어있다. 특히 순백색의 라벨과 캡실로 ‘화이트 호일(White Foil)’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폴로저 샴파뉴 브뤼 리저브’는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 샴페인으로도 사용됐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폴 로저 샴페인을 매일 마셨다고 알려졌으며, 자신의 경주마 이름도 ‘폴 로저’라고 지었을 정도였다. 폴 로저는 처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1984년 ‘꾸베 써 윈스턴 처칠’을 출시했다.

유명세를 탔더라도 기본기가 없었다면 유행처럼 지나갔을 터. 폴 로저는 세대가 바뀌어도 양조 철학은 그대로 유지해 일관된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블렌딩 비율이다. 논빈티지 샴페인의 경우 피노 누아와 피노 뫼니에, 샤르도네를 각각 3분의 1씩의 비율로 섞는다.

위베르는 “피노 누아는 과실과 바다감, 피노 뫼니에는 구조감과 숙성을, 샤르도네는 신선함과 시트러스 특징 등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세 품종이 가진 개성과 구조감을 가장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판단해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포도밭 소유 비율 역시 세 품종의 1대1대1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려함보다는 섬세함과 정교함이다. 병 숙성 후 침전물을 제거하는 데고르주멍을 2차례나 진행하는 이유다.

그는 “폴 로저는 포도 자체의 섬세한 캐릭터를 최대한 깨끗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며 “배럴 사용을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인 데고르주멍을 한 번 더 진행해 거친 요소를 제거하고 정제된 스타일을 완성한다”고 밝혔다.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일반 납았다. 폴 로저는 일반 샴페인 숙성 기준인 논빈티지 최소 15개월, 빈티지는 최소 3년을 크게 뛰어넘어 논빈티지도 3~5년, 빈티지는 6

~10년 숙성한다.

치트키답게 음식 페어링은 쉽다. 웬만하면 어울린다. 특히 한식을 비롯해 아시아 음식에 마시기 편한 것도 국내 샴페인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그 역시 “샴페인은 매우 유연한 음료”라며 “식사의 거의 모든 순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제 빈티지 브뤼’는 매운 음식과도 잘 맞으며, ‘꾸베 써 윈스턴 처칠’은 수개월 숙성한 콩테 치즈처럼 깊고 짭조름한 풍미의 숙성 치즈와 마셔보라고 추천했다.

아시아에서 폴 로저 수출 1위는 일본이다. 한국은 그 뒤를 이은 2위지만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수입사인 금양인터내셔널의 폴 로저 매출은 연초 이후로만 전년 대비 20% 가량 늘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Rising Star)’”라며 “역동적인 한국 시장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수출 담당자가 하반기에 한 번 더 방한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안산시립국악단 30년 발자취, 시민과 함께 울린다

1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서 음악회 남상일·김태연 출연, ‘단원의 꿈’ 대미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인 안산시립국악단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념 무대를 선보인다.

안산시립국악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제71회 정기연주회 및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1996년 창단 이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을 선보여 온 국악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현직 지휘자의 협력과 다채로운 협연으로 구성됐다. 공연의 서막은 전임 상임지휘자인 임상규 지휘자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위촉 작곡한 새로운 국악관현악 곡으로 장식한다. 이어 임교민 현 상임지휘자가 편곡한 곡에 오수연 안무가의 화려한 부채춤이 더해진 무대가 펼쳐진다.

대중성 있는 출연진의 무대도 마련된다. 소리꾼 남상일과 가수 김태연이 공동 진행을 맡아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는 한편, 이들의 듀엣 곡과 개별 솔로 무대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인 단원 김홍도를 주제로 한 모듬북협주곡 ‘단원의 꿈’이 장식한다. 이 곡은 임교민 지휘자가 새롭게 작곡한 곡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소호 연주자를 비롯한 다수의 모듬북 협주자들과 안산시립국악단의 합동 연주를 통해 웅장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교민 상임지휘자는 “1996년에 창단된 안산시립국악단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그에 맞추어 뜻깊은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DMZ 평화의 길서 첫 대규모 걷기 행사

12일 두타연 순환 코스 운영 양구 26코스서 1000명 참가

정부가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걷기 행사를 연다. 민간인통제구역을 지나는 ‘DMZ 평화의 길’ 코스를 대규모 인원이 함께 걷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일 강원 양구군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DMZ 평화의 길은 코리아둘레길의 최북단 도보여행길이다. 2018년 관문점선언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인천 강화군에서 경기 김포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인제군·양구군·고성군까지 10개 접경 시·군을 잇는 총연장 510km 규모의 길이다. 전체 35개 코스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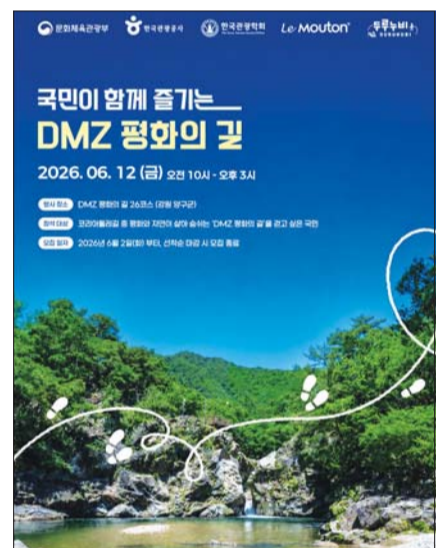
탐방객이 자유롭게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힐드노션’과 군사 안전 및 유엔사 승인 문제 등으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테마노션’으로 이원화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한반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DMZ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걷기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는 1000명 규모다. 7일까지 코리아둘레길 ‘두루누리’(Durunubi)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지만, 행사 종료 후 은누리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한다.

26코스는 민간인통제구역내 대표 생태 관광지인 ‘두타연’을 포함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걷기’

두타연은 맑은 계곡과 원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분단 이전 금강산 장안사로 이어지던 길목이다. 양구군에서는 ‘금강산 가는 길’로도 불리며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참가자들은 주차장을 출발해 조각공원과 숲속길, 두타1교를 지나 반환점인 두타2교에서 돌아온다. 이후 두타사 옛터와 두타정, 두타연폭포를 둘러본 뒤 다시 출발지로 복귀하는 순환형 코스를 걷게 된다. 대부분 평지길로 이뤄져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관주자에게는 기념 메달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셉(Sean)이 참가자들과 약 90분간 동행하며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

걷기 행사 이후에는 양구군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뉴시스

롯데시네마, ‘와일드 씽’ 코스튬 데이 개최

Y2K 콘셉트로 관객 참여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올여름 극장가 코미디 신드롬을 예고하는 영화 ‘와일드 씽’의 3일 개봉을 기념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풍성한 혜택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7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코스튬 시네마 데이’가 열린다. 이번 이벤트의 콘셉트는 영화 속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강동원, 엄태구, 박지현)’과 비운의 발라드 ‘최성근(오정세)’의 시그니처 컬러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과 ‘Y2K’다.

아울러 당일 ‘코스튬 시네마’ 회차에 콘셉트 의상을 입고 입장하는 관객에게 ‘와일드

씽’ 반다리를 증정해 극장 나들이의 재미를 한층 더한다. 특히 가장 독창적이고 멋진 스타일을 보여준 베스트 드레서에게는 ‘롯데시네마 관람권 패키지’와 영화 ‘와일드 씽’의 스페셜 굿즈가 선 물로 주어질 예정으로 관객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영화의 여운을 극장 밖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개봉일인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7층에는 ‘와일드 씽’ 공식 굿즈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팝업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일부 롯데시네마 스위트샵(매점)에서는 극 중 아티스트들의 세계관을 담은 ‘와일드 씽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단품 및 콤보 형태로 판매하고, 걸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가 ‘와일드 씽’



롯데시네마가 영화 ‘와일드 씽’의 개봉을 기념해 진행하는 코스튬 시네마 데이 안내 포스터. /롯데시네마

콘셉트로 촬영한 포토카드가 포함된 ‘트리플에스x와일드 씽 포토카드 콤보’도 함께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美 원유재고 22년 만에 최저... 에너지 안보 경고등 /사진 뉴시스
▲트럼프 관세 우회로 논란... ‘강제노동’ 카드 꺼냈다

▲트럼프 “미군 공격 없으면 이란전 재개 안 해”
▲휴전에도 멈추지 않은 확장... 가자 군사기지 40곳 확인

▲日 출생아 67만명 붕괴... 예상보다 15년 빠른 인구절벽
▲텐만연 37주년... 대만 “中, 역사적 진실 직시해야”